

## 평등하지 않다면 공동체가 아니다

세월호 문제는 박근혜 탄핵 사유에서 제외되었다. 한 아버지가 울부짖는 것을 보았다. ‘왜? 왜? 세월호만 안 됩니까? 왜? 우리 애들만 안 됩니까?’ 세월호에 관한 직무유기는 확인됐지만, 탄핵 사유가 되지 않았다. 범죄사실의 주장 입증이 충분치 못했다면 법원이 나서서 그 범위를 초과해 판단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헌법상 대통령의 직책 성실의 의무 안에서 판단해야 했다. 판결 주문은 탄핵 가결이었으나 그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린 일찍 예감했다. 기쁘지 않았다. 2017년 3월 10일의 일이다.

어제 <사회적참사로 이난 재난 공동체의 회복에 관한 연구 포럼>에서도 이런 말은 당연히 나왔다. 사건으로서 세월호는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여러 무책임과 그로 인한 무능력과 오류와 방기의 총합이 그날 그 수간 그 배에 실려버린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배의 침몰이 그간 우리 사회에서 구조적 폭력으로 작용해왔던 이른바 적폐에 최종 혐의가 있음을 직감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이것이 국가인가?“라고 묻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애석한 것은 우리의 촛불이 ‘박근혜적인’ 것과 싸우지 않고 ‘박근혜’하고만 싸웠다는 점이다. 누군가는 ‘혁명’이라 부르는 그 거리의 촛불이 결국은 사법적 판단에 모든 결론을 맡길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 뼈아픈 것이다. 세월호는 이제까지 우리 사회를 이뤄온 모든 과거들을 침몰시킬 만한 것이었으나, 현실은 패배하는 중이다. 세월호를 교통사고로 만들고 싶은 권력들은 이미 눈빛이 형형하던 시민들을 피로하게 만드는데 성공했고, 세상은 이름만 바뀌 단 배처럼 또 컴컴한 바다를 향해 중이다.

청와대 앞은 한때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던 사람들로 늦도록 소란했다. 누군가는 단식투쟁의 무용성을 말한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까지 싸워야 하느냐고 묻기도 한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할 말이 아니다. 싸울 무기가 없는 자들은 지하 작업장에서 홀로 기계에 끼여 죽거나 이렇게 광장에서 죽음을 중계해야 한다. 모두 나서지 않으면 결국 내 차례가 올 것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은 목숨을 걸지 말라고 한다. 어떤 개인을 염려하다 이 세계의 진실을 외면하며, 우리는 술하게 가해자의 대오에 섰었다.

어제 토론에선 이런 말도 나왔다. 진심으로 세월호 문제를 극복하려면 우리가

스스로 가해자임을 승인해야 한다고. 사건으로서는 피해자이지만, 세월호 같은 일이 일어나고 지속되게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복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싸울 수 있다고. 우리가 인간이 되는 과정은 결국 자신을 가해자로 승인하는 순간에 일어난다고. (후지이 다케시의 말을 빌려 내가 말하기도 했던 부분)

단식자에게 인터뷰하는 기자처럼 많이 물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당신의 단식이 누군가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였다. 그의 말은 덤덤하고 간략했다.

“그래도 누군가는 이렇게라도 싸워야죠. 아니면 저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될 명분을 줄 것 같아서요. 절대론 그렇게 두면 안 돼요.“

아직까지 그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못했었다.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처럼만 들어지는 현재의 세월호 내부의 논의에 가담하기 싫은 까닭도 있지만 무엇보다 큰 이유는 ‘공권력에게 청원하는 것 자체가 민중의 패배’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어제 포럼에서도 ‘사회적 참사로 일어난 갈등’이란 말에서 그 ‘갈등’이란 말이 ‘국가가 시민을 혐오하기 위해 만든 언어’라고 길길이 뛰었고, 국가 없이 안을 만들어 실무수행만 시키자고 뜯구름 제안을 했었다.

그럼에도 막상 현실의 단식자를 보니 마음이 움직였다. ‘아..이것이 힘이구나..’ 그렇게 승복하게 되었다. 누군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뭐라도 한다는 것, 누군가 저렇게 싸우고 싶다는 데 내가 뭐라고 그의 싸움을 평가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타인의 투쟁 형태에 짐짓 염려를 표현하며 동의하지 않는 순간, 실은 그에게 우아한 싸움을 권유하며 그를 혐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요즘 무수히 듣는 말, ”운동을 망친다”라거나 “분열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무슨 소용이냐?“ 심지어 ”네가 뭔데 단식하냐(나서서 주체가 되어 운동하느냐)?“는 말이 불과 2년 도 안된 어느날, 내가 차디찬 겨울 길바닥 단식 40일째에 들었던 말이란 것도 소스라치게 깨달았다는 것이다.

누가 투쟁을 결정하는가? 운동의 성과는 무엇인가? 승리? 그렇다면 승리란 무엇인가?

68혁명이 당시의 시간대에선 드골을 퐁피두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결국 유럽과 세계를 비가역적 상태로 만들어 낸 것처럼, 나는 아직도 세월호가 그런 힘을 만들어 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이제 인간 개개인이 평등하지 않고서는 결코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는 자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이 사회의 문제는 바로 그 인간 대등성의 실패에서 시작된 일이고, 우리의 운동의 최종 승리는 우리가 모두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의견을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공론의 장, 바로 광장을 만들어 내는 일인 것이다. 나는 이것을 승리라 부르기로 했다.

단식투쟁 당시 나에게도 천 번은 물었다.

“이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뀌냐?”

내가 대답했다.

“내가 이렇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겠지. 하지만 어떻게든, 얼마큼은 바꿔놓겠지. 안 바뀐대도 좋아. 왜냐면... 이제 세상도 나를 바꿀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미 세상은 바뀐거지.”

나는 지금 세월호로 인한 재난 공동체,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누가 공동체를 훼손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되는가?